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은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주대학교청 일원에서 '비움나눔 페스티벌'을 연다. 사진은 전시가 열리고 있는 지하전시장 풍경.

“희망과 사랑, 위로의 바람이 분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비움나눔페스티벌' 28일부터 광주대학교청 전시·공연·이해인 수녀 북콘서트·어린이그리기대회·비움나눔장터 등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이들이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3고로 대변되는 경제난 탓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떤 이들에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기나긴 터널만 드리워져 있는 형국이다.

“희망과 사랑, 위로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으면 해요.”

천주교광주대학교 최윤복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장은 비움나눔 페스티벌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말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주대학교청 일원에서 '제6회 비움나눔페스티벌'을 연다. 올해 주제는 '바람 불어 물이 흐른다'. '바람'은 두 의미를 지닌 중의적 표현이다. 하나는

핀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람(wind)이 분다'를 뜻한다. 주제는 희망과 사랑, 위로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이웃을 다독였으면 하는 기원을 표현한 것이다.

올해 페스티벌은 50여 명이 참여한 미술전시와 사진전, 팝페라가수 임형주의 무대, 퓨전 국악 공연, 이해인 수녀 북콘서트, 어린이그리기대회, 플라마켓, 비움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다.

올해 전시 감독을 맡은 소빈 작가는 “예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어 색다른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전시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눈을 즐겁게 했다. 브레디관(옛 기숙사동)에는 37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호국 작가 외에도 철도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강병규 작가, 설치작품을 선보이는 김두석 작가, 스페인, 미국에서 온 아이노아 마르티네즈와 리카도 마타레스 작가의 작품도 만난다.

그 가운데 이호국 작가의 작품은 파스하면서도 정감어린 감성을 선사한다. 다소 거친 듯한 화면은 순박한 시골의 정서와 아울러 속도와 물질만능에 길들여진 우리의 우리에 한 박자 씩의 삶을 사유하게 한다.

배철호 작가의 조각은 청동 자체에서 태어난 조각으로 가시를 만들어 붙인 작품이다. 가시들은 십자가

형상으로 수렴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상징한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인 '바람 불어 물이 흐른다'를 환기하며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일깨운다.

영화촬영장으로도 사용했던 지하 전시장에도 의미있는 작품들이 걸렸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성찬 등은 '비움'과 '나눔'의 본질적인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미술 전시회와 아울러 주말에는 총 6차례 작가와 대화시간이 마련돼, 작가들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가톨릭사진작가회 김영식 사진전 '바람-바다'도 눈길을 끈다. 영글에 담긴 20여 점의 사진들은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바다와 어촌 풍경을 초점화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공연도 펼쳐진다. 오는 28일(오후 7시)에는 팝과 성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팝페라테너 임형주를 만난다.

맑은 감성과 시어로 위안을 주는 이해인 수녀의 북콘서트는 11월 3일 대건문화관에서 열리며,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과 테너 송봉섭도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린이그리기대회, 사진촬영대회는 28일, 나눔과 비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플라마켓과 비움나눔장터는 11월 4-5일 열린다.

이밖에 제10회 가톨릭영화제 선정작도 관객들을 만난다. 평생교육원 지하 강당(11월 4-5일)에서 장편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 '마지막 사랑의 노래 or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가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페스티벌은 광주시가 후원한다. 지난 2017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옛 광주가톨릭대학) 브레디관(기숙사동)에서 처음 열린 '비움나눔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해인 수녀의 북콘서트는 11월 3일 대건문화관에서 열리며,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과 테너 송봉섭도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린이그리기대회, 사진촬영대회는 28일, 나눔과 비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플라마켓과 비움나눔장터는 11월 4-5일 열린다.

이밖에 제10회 가톨릭영화제 선정작도 관객들을 만난다. 평생교육원 지하 강당(11월 4-5일)에서 장편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 '마지막 사랑의 노래 or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가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페스티벌은 광주시가 후원한다. 지난 2017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옛 광주가톨릭대학) 브레디관(기숙사동)에서 처음 열린 '비움나눔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호국 작 '나들이'

광주여성영화제 '더 크게, 한 판!'

11월8~12일 광주극장·CGV 광주금남점

“더 크게, 한 판!”

2010년 시작한 광주여성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화를 매개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일조해 왔다. 올해 제14회를 맞아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채희·여성영화제)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광주극장 및 CGV(광주금남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크게, 한 판!'.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여성영화제 권 단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출품작은 총 414편이었으며 예심은 김수진(전1980 편집장), 박서영(영화음악가), 이서영(광주극장 코디네이터), 이다혜, 김유안(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램팀) 등이 진행했다. 심사를 진행해 '가장 보통의 하루(김주연)', '과회만사성(유재인)', '숨소리(김가영)', '실금(권다솜)', '퀸의 뜨개질(조한나)' 등 본선 진출작 12편을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본선 진출작은 분행사 기간(11월 9-12일) 본선



'힘찬이는 자라서'

심사위원과 관객심사단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작품상, 특별상, 관객상을 선정해 폐막식(11월 12일)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태초에...물이 흐르고 흘러서'

'가는 길-나, 지금, 여기에'

이순분작가 회화전, 30일까지 도화현미술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 인생의 여정에 드리워진 길은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순분 작가는 2달여간 고흥에 체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났다. 고흥반도 끝자락에서 만나는 바다와 풍광은 작가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을 줬을 것 같다.

도화현미술관(관장 박성환)에서 이순분 작가의 회화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가는 길-나,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2023 도화현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작가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장에서는 모두 5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가 두달 여 고흥에 체류하면서 느낀 감흥과 단상들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마다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형태의 작은 배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회복 속 작은 배는 작가 자신의 조형세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언어로 다가온다. 얼핏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도 보인다. 또한 그것은 먼 바다를 향해 외로운 행로를 좇으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열어가는 창작세계에 비견될 수 있다.

박성환 관장은 “이순분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은 배는 도구로서의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작가 자신의 회화적인 이상을 상징한 의인화된 이미지”라며 “먼 바다를 향해 어딘가로 떠나가는 배는 긴 여정의 인생행로에 비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순분 작가는 스페인 알코르콘 시립미술관, 서울 예술단체갤러리, 서울오픈아트페어 등에서 작품을 발표했으며 도화현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작가의 11번째 개인전이다.

'이당금의 지구여행 2023 음악콘서트'

씨어터연바람, 28일~11월18일 매주 토요일 무대

리듬 앤 블루스, 포크락 클래식, 국악컨템포러리, 그리고 앙상블 재즈.....

씨어터연바람은 '이당금의 지구여행 2023 음악콘서트'를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술이백그라운드(동구 구성로 204번길 1-1)에서 펼친다. 공연은 한달 여 기간 총 4회 매주 토요일(오후 6시)마다 다양한 콜라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28일에는 '김마스타 연합사령부'가 리듬 앤 블루스 장르를 들려준다. '명덕블루스', '방랑자', '씨유인한강', '첫눈'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11월 4일에는 박재홍과 성기문의 재즈 콜라보 무대를 볼 수 있다. '언제나 그대 내 곁에', '황성옛터'와 같은 한국곡부터 '조지아', '에브리데이', 'Ain't nobody business if I do' 등 보컬과 피아노의 재즈 앙상블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같은 달 11일에는 국악그룹 조선구르부유닛과 윤주희의 국악 공연이 이어진다. '서울아리랑', '그대에게', '진도아리랑'부터 '썬타령', '어랑어랑', '사랑은말이야'까지 흥미로



운 제목의 곡들을 선보인다.

끝으로 18일 포크락 클래식 공연을 기치로 내걸고 록밴드마루 보컬 오후와 첼리스트 성지성이 협연할 예정이다. 'Fly me to the moon', '사랑할까요', '가을편지', '내마음의 크리스마스', 'Havana' 등 다채로운 곡명은 관객들의 이목을 벌써 모은다.

전석 3만 원. 인터파크 예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 | |
|-----|------------|---------------|
|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 062) 227-9940 |
| | | 062) 227-9970 |
|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 02) 765-9940 |
| 순천점 | 중앙시장 앞 | 061) 752-9940 |